

2022년 대우조선 파업과 거통고지회의 투쟁

▮ 일시: 2024년 5월 25일(토) 15시~17시

▮ 장소: 서울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 발제: 김형수(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지회장)

호 소 문

“지금처럼 살 순 없다며 자신이 가진 용접기술로 작은 철창 감옥을 만들어 스스로를 가둔 노동자가 여기 있습니다.”

자랑스런 110만 민주노총 조합원동지 여러분!

기나긴 노동자투쟁의 역사 위에 민주노총이 있습니다. 그 민주노총 안에 그리고, 이 사회 곳곳에 차별받고 소외당한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의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차별을 철폐하자고 소외에서 주체로 서기 위해 조선소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들이 거제에서 목놓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의 요구와 염원을 품고 사람답게 살아보자며 금속노조 거통고조선하청지회 조합원들이 임금원상회복과 노동조합을 인정하라는 요구를 걸고 대우조선 안에서 25일(26일 현재)동안 총파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우조선과 정부기관인 산업은행은 파업으로 인한 천문학적 손실이 나고 있다며 우리들에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 협박하고 우리들의 요구엔 침묵과 외면으로 일관하며 우리가 지쳐 쓰러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구사대를 동원해 폭력을 행사하고 노노갈등을 조장하며 각종 음해와 거짓 선동을 일삼고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정부에 공권력을 투입해 달라는 요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과 탈법이 난무하는 무법천지 생지옥 대우조선 안에서 200여명의 조합원들은 서로를 믿고 벼랑 끝 투쟁을 사수하며 사력을 다해 싸우고 있습니다.

왜? 대우조선은 천문학적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우리들의 요구를 묵살하려고만 하는지, 그 이유는 분명해졌습니다. 그 이유는 노동조합 파괴입니다. 그래서, 7명의 결사대가 끝장 투쟁을 결의하고 나섰습니다. 그 중 6명의 동지는 고공농성을, 1명의 동지는 자신이 가진 용접기술로 작은 철제감옥을 만들고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라는 말을 남기고 스스로 자신을 가두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이대로 살순 없지 않습니까?”라는 손피켓이 들려 있습니다. 차마 보고 있기조차 힘겨운 투쟁이고 외면할 수 없는 투쟁입니다.

살면서 지금처럼 간절했던 순간이 있었던가 되 돌아봅니다. 스스로 만든 철창 감옥 안에 갇혀 있는 동지를 민주노총의 힘으로 해방시켜 주십시오. 그가 만든 그 철창 감옥이 바로 우리가 깨어야 할 착취의 구조입니다.

전태일은 여기에 있습니다. 투쟁하는 노동자가 전태일입니다. 근로기준법을 품에 안고 산화해 가신 전태일열사의 절규가 이곳에 되살아나 동지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조합원동지 여러분! 7월 2일 민주노총의 힘을 거제에 모아 주십시오. 거제에서 함께 합시다. 투쟁!

2022. 6.28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지회장 김형수

[발제]

2022년 대우조선 파업과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투쟁, 그리고 노동계급운동이 가야할 길

김형수 (거통고조선하청지회장)

1.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결성 과정과 노조의 목표

1) '세상을 바꾸기 위한'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는 금속노조 경남지부 소속 지회로서, 조선업 구조조정 당시 하청노동자 대량해고 저지를 위해 거제통영고성 지역에서 노동하는 하청노동자를 조직하기 위해 설립된, 지역 단위의 지회임.

2017년 2월 5일 출범과 함께 조합원 총회를 열어 초대 임원과 집행위를 구성하고, 지회 첫 번째 슬로건을 '우리가 뭉치면 세상이 바뀐다'로 정했음. 2월 8일 출범 토론회를 개최해 현 조선소 상황에서의 노조 필요성과 각오. 그리고,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연대를 요청하고, 민주노총 거제지역지부 사무실 한켠에 책상 하나를 두고 세상을 바꾸겠다는 각오로 출발했음.

2) 거통고조선하청지회 설립 과정

(1) 노조 성격

2015년부터 예상된 조선업 불황으로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이 업체 폐업을 통한 구조조정과 임금삭감 및 임금체불들이 생기고, 그러한 흐름을 막아내기 위해 금속노조 경남지부 주도하에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그리고, 현장노동자와 활동가들이 모여 2015년 가을 '조선소하청노동자살리기 대책위'가 구성되었음.

조선업 불황 이전부터 대우조선해양을 중심으로 하청노동자들을 조직하기 위한 소규모의 조직(하청노동자 조직 위원회- 하노위)가 있었지만, 수년간의 활동으로도 노동조합으로 발전하지 못했고, 삼성중공업에서는 삼성중공업 일반노조(위원장 김경섭-정규직 해고자)가 있었지만, 노동자들의 민원해결사로서의 역할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을 조직하지는 않았음.

대책위 구성 이후 노조활동가와 현장 노동자들이 모여 논의 끝에 당시 상황에서 그 흐름을 막아낼 방안으로서 노동조합을 만들어 대응하자는 공감대가 만들어지고, 노동조합 설립을 위한 준비위가 구성되었음.(당시 준비위 위원장은 김동성동지- 거통고지회 초대 지회장) 그 결과, 금속노조 산하의 지회 설립을 결정, 1여년의 준비 끝에 하노위와 삼성중공업 일반노조 해소를 조건으로 2017년 2월 5일 거제통영고성 지역을 기반으로 한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가 설립되었음.

처음에는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와 같은 형태의 사내 하청노조를 설립하는 것이 당시의

여건과 상황에 더 부합한다는 의견들도 있었음 (당시 조직 활동을 하는 하청노동자들이 대우조선에 집중되어 있었음). 그러나 조선소 하청 노동자들의 높은 이직률을 고려해서 지역을 기반으로 한 노조로 만드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에 동의해 지역지회 형태로 출범하게 된 것임. 출범 당시 조합원은 34명이었음. 그러나, 사실 이마저도 조합원 모두가 조선소 현장에 있는 조합원이 아니라, 후원 형태로 가입한 활동가나 지역민이 포함된 수였음.

(2) 준비위 활동

준비위는 노동조합으로 가는 전 단계로서의 준비위였기에 업체 폐업, 임금체불, 산재사고 등 현안 문제가 발생하면 그에 대한 조치나 대응을 하면서, 노동조합 설립에 대한 당위와 필요성을 알려 나갔음. 그리고, 조선산업 현황에 관한 토론회나 기자회견을 열어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에 대해 알려 나갔음. 2016년 10월 29일엔 조선하청노동자 대행진이라는 이름으로 집회를 열어 전국의 노동자들이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의 현실과 자본의 무자비한 구조조정을 규탄하는 거리 행진을 진행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조합에 대해 노동계급적 의식 교육을 진행하며 닥쳐오는 피바람에 맞설 준비를 해 나갔음.

(3) 2017년 2월 5일 :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설립

2016년 2월부터 하청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조선업 구조조정이 본격화하면서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대형조선소에서 하청노동자 대량해고가 시작되었음.

거제지역에서는 하청노동자 대량해고에 대한 사회적 대응을 위해 지역 노동조합, 정당, 시민단체가 모여 '조선소하청노동자살리기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였음.

이 같은 사회적 대응과는 별도로 당사자인 하청노동자 조직화 및 투쟁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2016년 6월 조선하청지회 준비모임이 만들어짐.

조선소 하청노동자 대량해고 현실을 전국에 알리기 위해 2016년 10월 29일 '희망버스' 형식의 '조선소 하청노동자 대행진 행사'를 개최함.

이 같은 준비 과정을 거쳐 2017년 2월 5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를 창립함.

2. 거통고 조선하청지회 투쟁 경과

- 2022년 대우조선파업에 이르기까지

1) 1단계 : 노조 설립후 대중적 기반 모색

(1) 2017년 5월 : 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 대응 투쟁

2017년 5월 1일 거제 삼성중공업에서 작업 중이던 크레인 붕괴로 하청노동자 6명이 목숨을 잃고 25명이 다쳤으며, 수백 명이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대형 참사가 발생함.

조선하청지회는 지역 및 노동안전 단체와 함께 대책위를 구성하여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의 투쟁을 벌임.

이를 통해 작업 중지 기간 하청노동자 휴업수당 원청 책임 문제, 재해 및 목격 노동자 트

라우마 치료 문제 등을 제기하고 법제도 개선 요구함.

투쟁의 연장선에서 ‘조선업 중대재해 국민참여 조사위원회’를 통해 다단계 하도급 금지가 중대재해 예방의 가장 중요한 대책임을 보고서에 담아냄.

(2) 2017년 12월 : “되찾자 550” 투쟁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최저임금이 2017년 6,470원에서 2018년 7,530원으로 1천 원 이상 오르자, 하청업체들은 하청노동자 임금을 올리는 대신 기존에 지급하던 연간 상여금 550%을 나누어 시급에 포함함으로써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 했음.

이에 각 업체는 노동자들에게 상여금 550%를 없애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 서명을 받았고, 이에 대해 하청노동자들이 반발함.

조선하청지회는 하청노동자들의 상여금 550% 삭감에 대한 반감을 모아 퇴근시간 “되찾자 550” 촛불집회를 개최하였음. 촛불집회에 노동조합 집행부는 투쟁조끼를 입고 조합원임을 드러내는 공개 활동을 시작했고, 대우조선해양 최초로 하청노동자들은 직접 피켓을 들고 집회에 참여함.

“되찾자 550” 투쟁은 조선하청지회가 노동조합 상근자 중심의 선전활동에서 현장활동가(집행부)의 공개적 현장활동으로 전환하는 계기이자 하청노동자 집회 등 노동조합 활동에 직접 결합하는 계기가 되었음.

(3) 2018년 2월 : “문재인 대통령님, 대답해 주세요” 서명운동

“되찾자 550” 투쟁이 하청노동자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냈지만, 대중투쟁까지 나아가지 못하여 상여금 550%는 결국 삭감됨. 그러나, 하청노동자의 참여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 2018년 2월~4월 ‘상여금 550% 원상회복을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대우조선해양이 산업은행 관리하에 있는 점을 감안해 4월 21일 상경투쟁을 통해 3464명의 하청노동자들의 요구가 담긴 서명지를 청와대에 전달함.

서명운동 마무리 후, 2018년 하반기 ‘노동조합 가입운동’을 중심으로 현장활동을 진행하였으나, 구체적인 요구와 결합되지 않은 노동조합 가입운동은 별다른 성과를 만들지 못함.

2) 2단계: 노동조합 대중적인 투쟁의 전기

(1) 2019년 2월 : 대우조선해양 파워공 임금인상 파업투쟁

조선하청지회는 하청노동자의 구체적 요구인 임금인상을 2019년 활동 방향으로 잡았고 “하청노동자 시급 2천원, 일당 2만원 인상하라”를 요구로 정함. 이는 2018년 하반기 이후 조선업이 회복 국면이라는 점도 감안한 것이었음.

2019년 초부터 하청노동자들의 자생적인 임금인상 요구가 만들어지면서 현장이 술렁거렸음. 2016년 이후 삭감된 임금을 조선업 회복기에 보상받으려는 움직임이라 할 수 있음.

그러던 중 2월 26일부터 대우조선해양 도장업체 파워공들이 일당 2만원 인상, 퇴직금 별도 지급 등을 요구하며 작업거부에 들어감.

조선하청지회는 작업거부를 한 파워공들과의 접촉을 시도하였고, 그 결과 3월 4일부터 조

선하청지회가 결합한 조직적 투쟁을 만들어 냄.

파워공 투쟁대오는 최대 300명까지 늘어났고 출근 피켓팅과 집회는 물론 조선소 야드를 행진하며 기세 높은 투쟁을 벌임. 이에 도장업체에서 일당 7천 원 인상 → 1만 원 인상 → 2만 원 인상안이 제시됨.

그러나, 교섭과 협상을 통한 임금인상 쟁취가 아니라 반장을 통해 회사측 임금인상안을 전달하고 현장 복귀를 회유하는 방식이었고, 작업거부 2주가 지날 즈음, 2만원 인상안이 나오고 파업대오는 급격히 무너지고 각 반별로 현장 복귀가 이어짐. 결국 파업 15일을 끝으로 50여 명이 남아 투쟁을 마무리하고 현장에 복귀함.

2019년 파워공 임금인상 투쟁은 선하청지회가 하청노동자와 조직적으로 결합한 최초의 투쟁이자 조선소 하청노동자가 수백 명 규모로 벌인 최초의 대중투쟁으로 큰 의미를 갖음.

그러나 임금인상을 교섭을 통해 명시하지 못해 현장 복귀 후, 1만원이 다시 삭감되었고 노동조합으로의 조직화로도 이어지지 못함.

(2) 2019년 5월 : 성과금 지급을 요구한 “하청노동자 총궐기”

대우조선해양은 매년 정규직 노사 임금협상에서 성과금 지급을 합의하면 그 합의에 따라 하청노동자도 일정 금액의 성과금을 지급받았음. 보통은 3월 주주총회가 끝난 뒤 4월 또는 5월에 성과금이 지급되었음.

2019년 4월 성과금 지급이 하청노동자의 최대 관심사인 상황에서 정규직만 성과금이 지급되자 현장이 불만으로 들끓기 시작했고, 선하청지회는 이 불만을 모아 하청노동자 총궐기대회를 기획함.

“성과금 안 준답니다 / 스비 함 모입시다” 현수막을 현장 곳곳에 내 걸고 일주일 동안 하청노동자 총궐기대회를 홍보함.

5월 10일 “모든 하청노동자에게 성과금을 지급하라”는 요구를 걸고점심시간을 이용해 개최한 1차 총궐기대회에 2천 명이 넘는 하청노동자가 참여함. 500여 명의 하청노동자는 오후 작업을 하지 않고 대우조선해양 원청 본관으로 행진해 대우조선해양 원청에 성과금 지급 요구 공문을 전달하고 해산함.

하청노동자의 대규모 집결에 놀란 대우조선해양은 총궐기 바로 다음날 하청노동자 성과금 지급을 약속하고 지급했지만 상용직에게만 지급함.

완전하지 못한 성과금 지급 이후 5월 17일 개최한 2차 총궐기대회에는 하청노동자 1천여 명이 참석하였고, 150여 명이 노동조합에 가입함.

2천여 명이 참석한 하청노동자 총궐기대회는 하청노동자 투쟁과 조직화의 가능성을 보여준 매우 놀랍고 고무적인 사건이었으나, 이 투쟁이 2019년 계획했던 ‘시급 2천원, 일당 2만원 인상’을 요구하는 임금인상 투쟁으로 이어지지 못했음.

(3) 2019년 11월 : 삼광피앤씨 4대보험 체납 투쟁

박근혜 정부가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면서 하청업체 사용자 지원방안으로 ‘4대보험 체납처분 유예’를 시행하였고, 문재인정부 역시 마찬가지였음. 이에 하청업체에서는 노동자 임금에서 매달 공제한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횡령하였고 그 금액이 1천억

원이 넘어가게 되었음.

대우조선해양 도장업체 삼광피앤씨에서 4대보험이 체납되고 임금까지 체납되자 터치업 여성노동자 40여 명이 노동조합과 상담 후,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작업거부 투쟁을 시작함.

삼광피앤씨 여성노동자들은 출퇴근 집회는 물론, 대우조선해양 사장실이 있는 지원센터 로비에서 힘차게 투쟁을 진행함.

삼광피앤씨 여성노동자 파업투쟁은 지회의 예상을 뛰어넘어 2주 넘게 지속되었고, 업체 대표의 체납 국민연금 4억원 납부 약속을 받고 현장에 복귀함.

현장 복귀 이후 조직 유지의 방안으로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단체교섭에 대한 충분한 내용공유가 되지 않아 오히려 노동조합 탈퇴가 발생했고, 2020년 4월 임금체불이 발생하면서 업체 폐업으로 이어져 조합원 조직이 계속 유지되지는 못했음.

3) 3단계: 노동조합 투쟁의 고양기

(1) 2020년 9월~11월 : 명천 정리해고 투쟁

2018년 말 ~2019년 초 잠시 회복세를 보이던 조선업은 2019년 이후 다시 불황에 빠졌고, 코로나19까지 겹쳐 2020년 하청노동자 대량해고가 계속되었음.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2020년 1년 동안 4천 명 넘는 하청노동자가 대량해고 됨.

조선하청지회 조합원이 10명 이상 가입되어 있던 탑재업체 (주)명천에서 정리해고를 진행함. 그전까지 조선소 하청노동자는 업체폐업, 도급계약 해지 또는,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통해 하청노동자를 해고했었고 정리해고를 통보한 것은 최초의 일이었음.

조선하청지회는 9월 23일부터 점심집회를 시작으로 정리해고 철회투쟁을 진행함 → 11월 3일 사내 선각삼거리에서 천막농성 투쟁에 돌입함 → 11월 25일 1도크 내 타워크레인 고공농성 돌입함 → 11월 27일 정리해고 철회 합의로 투쟁 마무리함.

명천 정리해고 철회 투쟁은 정리해고 대상자와 비대상자가 함께 끝까지 투쟁했고, 크레인 고공농성 등 강고한 투쟁으로 조선소 하청노동자에게 처음 발생한 정리해고를 철회시켜 냈다는 점에서 큰 승리를 한 투쟁이었음.

(2) 2021년 3월 : 삼성중공업 파워공 임금인상 파업 투쟁

2021년 3월 8일부터 삼성중공업 도장업체 파워공들이 일당 2만원 인상, 퇴직적치금 폐지, 유급휴일 보장을 요구하며 작업거부에 들어감.

조선하청지회는 3월 11일 찾아가 파업 노동자들과 만났고, 3월 12일부터 조직적으로 결합해 투쟁을 시작함. 조선하청지회 결합 이후 투쟁대오는 최대 500여 명까지 늘어남.

삼성중공업에서 최초로 벌어진 하청노동자의 대중투쟁에 놀란 업체는 일당 1만원 인상 등 파워공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안을 제시하기 시작함. 이에 투쟁 대오가 일부 흔들리기 시작했고, 조선하청지회의 판단으로 투쟁 노동자들과 토론을 거쳐 3월 17일 파업을 종료하고 3월 18일 현장에 복귀함.

삼성중공업 파워공 파업투쟁은 2년 전인 2019년 대우조선해양 파워공 파업투쟁과 흡사한 모습으로 진행됨. 하청노동자의 자발적 작업거부 → 조선하청지회 결합으로 조직적 투쟁으

로 전환 → 투쟁 고조 → 하청노동자 요구를 수용하는 회사안 제시 → 투쟁 대오 흔들림 → 파업 종료 후 현장복귀 과정이 거의 비슷했음.

그러나 2019년 대우조선해양 파워공 파업투쟁이 2021년 삼성중공업 파워공 파업투쟁의 밑거름이 되었음을 확인했고, 투쟁 과정에서 대규모 노동조합 조직화의 가능성을 보았으며, 주체적인 판단으로 조직적인 파업 마무리 및 현장복귀를 했다는 점에서 한 발 더 앞으로 나아갔음. 당시 구호가 “시작도 함께 마무리도 함께” 였음

(3) 2021년 4월 : 대우조선해양 도장노동자 23일 파업 투쟁

삼성중공업 파워공의 임금인상 파업 투쟁은 곧바로 대우조선해양 파워공 파업 투쟁으로 이어짐.

대우조선해양 도장업체 파워공은 3월 31일 2년 만에 다시 자발적 작업거부 투쟁을 시작함. 조선하청지회는 작업거부 다음날부터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결합했고, 2019년 파업 투쟁과 직전 삼성중공업 투쟁을 경험한 하청노동자들도 조선하청지회의 제안에 호응하여 150여 명이 금속노조에 집단 가입하여 조직적인 투쟁을 시작함.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파업 투쟁을 시작한 만큼 핵심은 9개 도장업체와의 교섭을 통해 투쟁을 마무리하는 것이었음. 이를 위해 파업 대오는 대우조선해양 사장실이 있는 지원센터 타격투쟁, 1도크, 2도크 진입 투쟁 등 초반 강력한 투쟁을 전개함. 또한 파워공에서 시작된 투쟁에 터치업, 스프레이 노동자들이 합류하며 전체 도장업체 투쟁으로 확산됨.

하청업체 대표들은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은 채 협상에 임했고, 노동조합도 현실적인 판단으로 협상에 응함. 그러나 협상은 진통을 겪으며 합의에 이르지 못함.

1도크 진수가 예정된 상황에서 투쟁 대오는 도크사이드에서 2박 3일 노숙투쟁을 진행했고, 원청 대우조선해양은 구사대 조직, 경찰 병력 투입 등으로 대응함.

4월 23일 새벽 교착된 교섭을 조선하청지회의 결단으로 합의하고 23일 파업투쟁을 마무리함. 비록 노동조합의 이름은 아니었으나 노동자 대표가 9개 도장업체와 협상을 통해 합의서를 작성하고 투쟁을 끝냈고, 이후 단체교섭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음. 그러나 임금인상이 요구보다 부족하고 마지막 상황에서 조선하청지회의 결단으로 마무리됨으로서 조직적 후유증도 발생했으나 빠른 수습 과정을 통해 큰 이탈없이 조직이 유지됨.

(4) 2021년 : 도장업체 단체교섭 투쟁

23일 동안의 파업투쟁 마무리 후, 바로 단체교섭을 준비하고 5월부터 9개 도장업체에 단체교섭을 요구함.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6월부터 격주 1회 단체교섭을 진행함. 이는 전체 도장업체 노동자의 30%가 조직되었고, 주력인 파워공의 50%가 조직된 바탕이 있어 가능했음.

예상대로 원청의 결정 없이 하청업체가 교섭을 통해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은 전혀 없었고, 쟁의조정을 통해 2021년 10월 18일 파업권을 확보함.

애초에는 11월~12월 파업 투쟁을 계획했으나, 예상과 달리 작업 물량이 없어 본격적인 파업 투쟁은 2022년으로 넘겨야 했음. 11월 11일 하청노동자 최초로 대중적인 파업 집회를 개최함.

(5) 2022년 4월 : 대우조선해양 청원경찰 노동자 정규직 쟁취 투쟁

청원경찰 노동자는 청원경찰법에 따라 청원주인 대우조선해양이 직접고용해야 함에도 30년 동안 하청업체를 통해 고용해왔음.

대우조선해양의 자회사였던 웰리브가 구조조정 과정에서 사모펀드에 매각되었고, 이후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삭감을 강요하다 2019년 4월 1일 26명 전원 정리해고했음.

이에 청원경찰 노동자들이 조선후청지회에 가입하였고 정리해고 철회 정규직 쟁취 투쟁을 시작함. 2019년 6월 경남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판정을 했지만 2019년 9월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기각판정을 하였고, 다시 2021년 3월 행정소송에서 대전지방법원이 부당해고 판정을 하였음.

이에 청원경찰 노동자들은 2021년 3월 끝장 농성투쟁을 진행하여 법원 확정판결 이전에 대우조선해양에 직접고용(계약직) 형태로 현장에 복귀하였음. 이후 고등법원 2심 역시 부당해고 판결이 났고, 대우조선해양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대우조선해양 정규직을 쟁취하였음.

3. 2022년 대우조선 51일 파업투쟁

1) 파업투쟁 전초전 : 고용보장 8일 파업 투쟁 (2022년 4월)

도장업체의 2021년 단체교섭이 2022년으로 이어지면서 조선후청지회는 2022년 단체교섭은 9개 도장업체뿐 아니라 발판업체, 탑재업체 조립업체 등 교섭 가능한 모든 하청업체로 확대할 것을 결정함. 이에 따라 21개 하청업체에서 단체교섭을 진행함. 한편, 도장업체를 제외하면 조합원 조직율이 10% 이하이거나 2~3명이 가입한 업체 등 조직화율은 미약했음.

계획은 2022년 4월 파업권 획득, 5월 파업 투쟁을 목표로 단체교섭을 진행함. 하청업체들은 월 1회 교섭을 주장하며 시간을 끌었으나 5월 10일 모든 업체에서 파업권을 획득함.

이에 9개 도장업체는 4월 말로 1년 고용계약이 종료되는 노동자 중 근속 2년이 안 된 90여 명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공격해 옴. 이로 인해 계획에 없던 파업투쟁을 4월 말 시작하게 되었고 도장업체 노동자 고용보장 투쟁과 애초의 임금인상투쟁을 하나로 합쳐 투쟁을 진행함.

파업투쟁은 400여 명의 참여 속에 힘있게 진행되었고, 진수를 앞 둔 2도크 앞을 거점으로 농성투쟁을 진행하며 사측을 압박했음. 이에 계약해지를 통보했던 도장업체가 하나둘 고용보장을 약속하였음.

파업 지도부는 고용보장과 임금인상을 한꺼번에 정리하겠다는 무리한 판단으로 장기간 투쟁을 준비하지 못하고 참여한 노동자들의 이탈이 예상되어 고용보장 쟁취 후 8일간의 파업투쟁을 일단락하기로 결정하고, 임금인상을 위한 2차 파업을 준비함.

그러나, 파업투쟁 마무리 과정에서 이 같은 결정이 조합원과 충분히 공유되고 토론되지 못함에 따라 '임금인상'을 주목적으로 투쟁에 참여했던 조합원과 노동자들의 반발로 이후 조직적 후유증을 겪었고, 2차 파업투쟁을 힘있게 조직하는데 어려움으로 작용함. 또한, 고용

보장에 대한 명확한 합의를 체결하지 않은 채, 투쟁을 마무리한 결과 이후 평산, 진형 등 업체에서 고용보장 합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음.

2) 드디어 파업! - 비정규직 최초의 조선소 도크 점거파업

대우조선 51일 파업투쟁 (2022년 6월 2일~7월 22일)

- 고용보장을 위한 1차 파업투쟁을 마무리하고 조직을 정비해 2022년 6월 2일부터 임금 30% 인상을 위한 파업투쟁에 들어감. 처음엔 부분파업으로 시작했으나 하청노동자의 조건과 잘 맞지 않아 6월 7일부터 전면파업에 들어가고 7개 생산 거점에서 농성투쟁을 진행함.

7개 생산거점 농성투쟁 과정에서 하청노동자들의 지지 및 작업을 하지 않은 동참이 있었고, 그에 따르는 생산 타격 효과가 크게 발생함. 그러자 원청은 현장 직반장으로 구성된 구사대 현장 책임자 연합(현책연)를 동원하여 폭력적으로 농성장을 침탈하기 시작함. 하청업체는 기자회견 권기대회 등으로 파업투쟁을 매도하고 공권력 투입을 요청함.

- 구사대 침탈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조합원을 구사대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하청노동자와의 물리적 충돌을 막고, 도크를 멈추는 투쟁으로 생산에 타격을 주기 위해 노조는 6월 21일부터 1도크로 거점을 옮겨 노동자 6명은 도크 벽면에서 고공투쟁을, 유최안동지(당시 부지회장)은 쇠창살 안에 몸을 가두는 끝장투쟁을 하기로 함.

도크 점거로 배의 진수식이 지연되고, 철장 안에 몸을 가둔 유최안동지의 모습이 사회적으로 알려지고 주목받으면서 지회의 투쟁이 전국적인 사안으로 확대됨. 파업 조합원 생계비 지급을 위한 '만만기금' 모금이 쇄도하였고, 전국적인 연대가 이루어짐. 한편으로는 구사대를 동원한 농성장 침탈 및 수천 명을 동원한 대규모 집회 등으로 파업대오를 위협하는 등 원청의 공세도 강화되었고,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에서 거둬진 경찰병력 투입 시사, 관계장관들의 기자회견 등으로 긴장감이 높아지며 언론의 집중 주목을 받게 됨.

관계 장관 기자회견 직후 7월 17일부터 원하청 노사 4자협이라는 형식으로 실질적인 협상이 진행됨. 형식은 4자 협의였으나 실제로는 하청업체 대표단과 금속노조/경남지부/조선하청지회가 함께 협상하는 방식이었고, 정규직 대우조선지회도 협상에 함께 참석해 원청의 입장을 조율하는 방식이었음.

- 1도크 점거농성 돌입 이후, 대우조선지회(금속노조 소속)내 어용조직인 민노연은 금속노조 탈퇴 운동을 하며 민주노총 금속노조를 압박하며 파업에 연대하기는커녕 파업 중인 조선하청지회를 하위별레라 칭하며, 반동적인 만행을 서슴치 않았음. 탈퇴 투표까지 갔으나, 투표 표결에 부정행위가 발생해서 투표는 무효처리 됨.

- 파업 지도부는 윤석열 정부의 경찰병력 투입 및 폭력진압이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조합원 보호를 위해 여름휴가 전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는 판단을 하게 됨. 그러나 투쟁 과정에서 선부른 양보안 제시로 핵심 쟁점이었던 임금인상 전선이 무너지면서 교섭의 추가 급격하게 기울어지게 됨. 그 이후 거둬지는 양보교섭으로 실질적인 임금인상을 포기한 매우 부족한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고, 51일 파업투쟁은 전국에서 달려온 희망버스 투쟁을 끝으로 마무리됨.

※ 2022년 거통고조선하청지회 51일 파업일지

4월25일~5월2일; 1차 파업-8일간(도장부 고용보장을 위한 파업)

6월 2일; 4시간 부분파업 시작, 2차 총파업 결의대회

6월 7일; 전면파업 시작 (느태발판물류센터, 서문발판 물류장, C안벽, RD4등)

6월11일~6월21일; 8개 안벽 및 1도크 출입로 투쟁 전개

원청 현책연 및 관리자 투쟁 천막 침탈, 폭력 탄압

원청 협력사 관리자 및 작업자 동원 강제 진입 시도

6월 22일; 협력사 대표 및 관리자 위력 시위(파업중단요구)

6월 22일; 1도크 점거 농성 돌입

6월 24일; 금속노조 경남지부 결의대회(서문 앞)

7월 2일; 민주노총 전국노동자 대회 서울, 거제 동시 진행

7월 8일; 민주노총 결의대회

7월 15일; 교섭 시작

7월 20일; 금속노조 총파업 결의대회

7월 22일; 교섭 타결, 1독 점거농성 해제

3) 파업 이후 고용보장 합의 이행 투쟁 (2022년 8월~9월)

51일 파업 마무리 후 부족한 합의 내용에 따른 조직적 어려움이 상당했음. 특히 폐업업체 조합원의 고용승계 합의 내용이 불완전했고, 그 내용마저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므로 해서 큰 문제가 됨.

이에 조선하청지회는 천막농성과 더불어 8월 18일부터 김형수 지회장이 서울 상경투쟁으로 여의도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감.

추석을 앞둔 9월 8일 고용보장에 합의하고 단식농성을 마무리했으나 이후 또다시 사측에 의해서 합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과정에서 조합원의 실망, 노동조합 신뢰 상실 등 큰 조직적 어려움을 겪음.

4) 노조법 2,3조 개정을 위한 국회 앞 단식농성 (2022년 12월)

“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 라는 구호로 대변되듯이 51일 파업투쟁으로 사회적으로 환기된 조선소 비정규노동의 문제는, 이후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투쟁이 본격화되면서 이 입법투쟁과 자연스럽게, 그리고 불가피하게 연결되었다. 노조법 2조의 ‘사내하청노동’에 대한 사용자성 개정, 3조의 유명무실화된 민사상 면책 조항은 당시 파업이후 회사가 노조 임원 5인에게 470억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하면서 지회 차원의 현안이 된 것이다.

금속노조의 제안을 받고 거통고조선하청지회는 지회 차원에서 노조법 개정투쟁을 선도적으로 안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지회장을 필두로 서울에 상경하였고, 이중 지회 임원 3명이 국회 앞 단식 농성단에 합류하여 11월30일~12월29일까지 단식농성을 하고 국회 의사당 계단까지 진출하여 농성을 계속 했다. 또한 12월 26일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면담을 요구하며 민주당사 농성투쟁을 감행했지만 불발로 그치고, 노조법 2,3조 입법투쟁은 민주당사 농성을 정리함. 이 과정에서 김형수 지회장과 안준호 부지회장이 연행되었다 풀려남.

그러나, 거통고조선하청지회 파업과 같은 시기에 파업으로 투쟁 전선을 형성했던 화물연대

투쟁 앞에서 민주노총이 더 이상 투쟁적인 전선을 확대하고 연대하지 못하였음. 또 노조법 2,3조 개정을 위한 집단적인 단식농성 역시, 애초에 계획했던 민주노총의 전면적인 투쟁을 조직하고 집중시키는 역할을 제대로 다하지 못하고, 민주당의 국회 일정에 의존하면서 민주당을 압박하는 방식의 수동적인 투쟁이 진행됐고, 결국 국회앞 단식농성은 2022년 국회 일정 종료에 따라 맥없이 마무리되었음. 이후 2023년 12월 노조법 2,3조는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주도로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실제 통과안은 실질적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담보하기엔 너무도 미흡한 내용이었음. 그러나, 그조차도 당연한 수순처럼 대통령이 거부했고, 2024년 민주노총 차원에서 다시 노조법 2,3조 재입법화 움직임을 있는 상태임.

4. 현재: 51일 파업 이후 노조 활동

1) 2022년 파업 평가와 2023년 목표

2022년 조선후청지회는 51일 파업투쟁으로 하청노동자의 현실을 전국에 알리고, 2022년 중요한 투쟁 전선을 형성했으며, 노조법 2,3조 개정 투쟁의 밑거름을 만든 성과는 있었으나, 주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목표였던 단체교섭과 파업투쟁을 통한 하청노동자 대규모 조직화의 기반 마련은 실패함.

이에 2023년 단체교섭과 파업투쟁을 통해, 한발 물러선 하청노동자 대규모 조직화의 과제를 안고 다시 두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

한편, 2022년 12월 30일 중앙노동위원회가 변칙적인 내용이라는 하지만 원청 대우조선해양이 조선후청지회와 단체교섭을 해야 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노조법 2,3조 개정의 사회적 분위기도 조성되는 등 원청과의 단체교섭이 핵심적인 목표로 제기됨.

특히, 2023년은 대우조선 파업 이후 대우조선해양이 한화오션으로 경영주체가 바뀐 첫 해이므로 원청 한화오션과의 단체교섭 투쟁이 매우 중요함.

조선후청지회는 2023년도 임금 30% 인상, 상여금 100-100-100 지급, 원하청 차별 해소를 주요 요구로 단체교섭을 진행했으며, 대우조선지회, 웰리브지회와의 시기 집중 투쟁을 계획하고 있음.

2) 2023년 21개 업체와의 단체 교섭

2022년 51일 파업 이후, 대우조선해양은 한화 자본으로 넘어갔고, 바뀐 원청 한화오션에 교섭 요청했지만 거부당함. 원청 한화오션을 대상으로 한 행정소송 진행중. 23년 단체 교섭에서 빼앗긴 상여금 50%를 회복하긴 했으나, 22년 투쟁의 트라우마를 벗어나지 못해 현장 투쟁을 조직하지는 못함.

3) 정세적인 투쟁 : 공안탄압 대응

2023년 2월부터 윤석열 정부 검찰과 국정원은 잇따른 간첩단 사건을 만들며 공안탄압을 하고 있고, 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을 매개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투쟁을 북한의 지령에 의한 것으로 왜곡 매도함. 또한 강인석 부지회장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함.

이에 따라 조선하청지회는 금속노조, 경남지부와 함께 윤석열 정부의 공안탄압 대응,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에 함께 했으며, 2023년 4월 10일 거제에서 출발해 5월 1일 서울까지 전국을 도보로 행진하는 금속노조 행진단에 참여함.

4) 2024년 사회적 투쟁 재점화를 위한 총회와 투쟁 문화제 개최

2024년 한화오션이 본격적으로 그 본색을 드러내고 있음. 한화오션은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기 위해 대우조선지회(정규직-아직 지회 이름 변경하지 않음)에 대해서는 상근자 TO를 타임오프제에 맞게 하라며 예전 대우조선해양 당시 체결한 단협을 인정하지 않음. 웰리브지회(급식,수송,업무지원)는 8개 식당의 분리 매각을 통해 노조 쪼개기를 시도하고 있음. 거통고조선하청지회에 대해서는 현장 노조활동이 법률적으로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입통제를 통해 현장 활동을 방해하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국면에서 노조는 가라앉아 있는 현장을 곧추세우고, 사회적 투쟁 재점화를 위해 총회를 열어 조합원을 독려하고, 전국 단위 연대를 위해 투쟁 문화제를 개최함.

- 또한 올해도 20개 하청업체를 대상으로 교섭을 진행하고 파업권 확보 시점에 맞춰 투쟁을 준비하고 있음. 현재 한화오션은 인수당시 정규직노동자들에게 주식배당과 하청노동자에게 3년간 성과금 100%씩을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지키지 않고 있음.

5. 거통고조선하청지회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며

2017년 2월 조선하청지회가 창립하고 조선업 구조조정에 맞서 하청노동자들의 삶을 바꾸고, 나아가 세상을 바꾸기 위해 달려왔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투쟁의 연속이었다. 세상은 51일 파업 투쟁을 통해 거통고지회의 존재를 알게 되고 앞으로 기억하겠지만, 2017년 말 “되찾자 550” 투쟁으로 현장 투쟁이 시작되었고, 2019년 2주간의 대우조선해양 파업공투쟁으로 조선소 하청노동자의 대중투쟁이 본격화되며, 51일 파업 투쟁까지 투쟁은 끊임없이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거통고지회는 항상 ‘사회적’ 투쟁을 만들어내기 위해. 그리고, 하청노동자들이 자신의 사회적 존재조건을 깨닫고 느끼게 하기 위한 시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었고, 나아가 현장에서 기회를 포착하고 이슈를 만들어내면서 여러 다양한 투쟁을 통해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 특히 하청노동자라는 위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려 왔다. 단지 노조를 통한 나의 근로조건 개선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자본가들에게 노동자의 힘을 깨닫게 하는, 그래서 ‘세상을 바꾸는’ 노조라는 것이 거통고지회 노조 창립때의 원칙이다.

현재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가 가져야 되는 입장과 이 세상이 어떤 구조와 체제속에서 움직이고 있는지를 알리고 깨닫고 그리고 맞서기 위한 노력들을 경주하고 있다.

2022년 거통고조선하청지회의 51일 대우조선 현장 파업투쟁이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의 현실을 전국에 알리며 사회적 투쟁으로 나아갔지만, 대규모 현장 조직화의 돌파구는 열지 못한 채 여전히 조선소 하청노동자 대규모 조직화는 과제로 남아 있다. 조선하청지회는 지금까지 걸어온 것처럼 앞으로도 하청노동자 대중투쟁을 통해 대규모 조직화를 위한 길을 갈 것이다. 그리고, 이는 거제, 울산, 목포 조선소 하청노동자가 함께 만들어 내야 하는 투쟁을 조직해 나갈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산의 주체이면서도 그 지위를 부정당하고 차별과 억압 속에서 살아가는 하청노동자라는 계급적 위치를 아는 것. 어찌 보면 그것이 진짜 투쟁의 시작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달 벌어 한달 사는 하청노동자에게 470억 손해배상이 가능한 사회. 온갖 어렵고 위험한 일들을 도맡아 하면서도 10년 뒤, 아니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현장에서 일하는 하청노동자. 일하다 다치거나 아프면 눈치보며 자책부터 하는 노동자. 이런 노동자들이 일하는 곳이 조선소이고, 자본주의 사회가 만든 현실이지 않은가?

참고 견디고 누르고 피한다고 해서 달라질 세상이 아니다. “우리가 뭉치면 세상이 바뀐다!” 이 구호를 현실로 바꾸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과 도전을 멈춘다면 우리는 함께 뭉치지도, 미래를 바꾸지도, 이 착취의 세상에서 한치도 벗어나지도 못할 것이다. 노동자 대중 속에서, 조합원들과 함께 세상을 계급적으로 바라보고 대규모 조직화와 사회적 투쟁을 만들어내는 것이 거통고 조선하청지회의 목표이고, 설립 목적이다. 이 글을 쓰는 이 시간조차 그 목표와 목적을 위함이다.

오늘 (5월24일) 거통고 51일 파업 투쟁 3차 재판이 통영법원에서 열린다. 법도 무기도 생산수단도 가지지 못한 하청노동자이지만, 우리는 언제나 실질적으로 세상을 만들어 가는 주체임을 잊지 않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나아갈 것이다. 조선소 노동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하청노동자를 노동조합으로 조직하고 투쟁하려는 시도는 20여년 전부터 계속 있어 왔다. 그 역사 위에 거통고 조선하청지회 투쟁이 존재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 역사와 과정을 운동으로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다. 개인의 삶이나 노동조건을 조금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전부 바꾸는 것, 그러기 위해 세상의 근본적 변화를 위한 투쟁이 필요하다.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노동운동이다.

거통고 조선하청지회 설립과 투쟁의 과정은 현재 민주노총과 산별노조가 가지고 있는 온갖 한계와 문제점들을 확인하고, 사라지고 우경화되어 가는 노동계급 투쟁을 복원하기 위한 과정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비정규직 투쟁은 자본이 만들어 놓은 자본의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피해자, 사회적 약자 등으로 표현되며 계급적 입장을 내지 못하고 있다. 비정규직 투쟁은 불법파견 소송을 바탕으로 한 투쟁이 최고 수위의 투쟁이었고, 차별을 철폐하는 것이 최고의 목표처럼 되었다. 물론 투쟁을 위한 전략적 선택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전략적 선택은 스스로의 투쟁을 더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가두리가 되었고, 노조는 노동자에게 ‘보험회사’처럼 되어버렸다. 노동조합 스스로 그 한계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거나 문제의식을 가지는 노동조합은 줄어 가고 있고, 민주노총이 그러한 흐름을 주도하는 듯한 모습이 더 큰 문제이기도 하다.

하지만 거통고조선하청지회는 전국의 투쟁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연대하고 함께 투쟁하며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비정규직 노동자가 보다 더 계급적 입장을 가지고 사회적, 역사적 주

6. 질문: 우리의 ‘투쟁과 운동’이 가야할 길

그 많은 투쟁과 열사. 그 많은 사회적 문제 속에서 우리는 왜 더 나아가지 못하고 후퇴하고 있는가? 민주노총 조합원이 늘어나지만 왜 사회적 차별은 더 커져 가는가? 우리는 이 질문을 먼저 해야 한다. 과연 노동조합 조합원이 늘어나면 세상은 더 나아지는가?

민주노총은 100만이 넘는 조합원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지만, 왜 사회적 지지 속에 사회적 투쟁을 만들어 내지 못할까? 단지 보수언론의 호도와 정부의 탄압 때문인가? 그리고, 왜?

민주노총 지도부들은 스스로 투쟁을 만들어 내지 못하고, 개별 노동자나 개별 단위 지회의 투쟁을 지원하거나 옹호하거나, 투쟁을 정리하거나 타협하는 역할만 하고 있는가?

정말 민주노총은 노동자를 위험 보험사인가?

왜? 우리는 노동자들의 투쟁을 운동으로 만들어 가지 못할까?

왜? 투쟁의 실패나 성공이 왜 다른 투쟁을 위한 역사나 교두보 역할을 하지 못할까? 이대로 ‘살찐 돼지’처럼 조합원만 늘리면 되는 조직화는 과연 누구를 위한 조직화이고, 무엇을 위한 노동조합인가?

계급적 입장이 없는 민주노총의 그 ‘민주’라는 단어는 과연 누구를 위한 민주이고, 민주라는 의미는 진정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사람들의 가슴을 설레이게 하는 이 “민주”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며, 민주주의의 완성은 어떤 모습일까?

완성된 민주주의의 사회에서 노동자들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모두가 이야기하지만 모두가 다르게 이야기하는 현존하는 민주주의는 과연 노동자들의 가슴이 설레게 할 무언가가 실존하는 체제인가?

사회 속에 살고 있으며 사회적 존재일 수밖에 없는 인간이 거부하는 사회주의는 불가능한 것인가?

마지막으로 왜? 사회적 인간인 노동자들은 사회주의를 모르거나 거부하는가? 사회주의는 우리가 부정하거나 터부시해야 할 관념인가?라는 이야기까지 할 수 있을 것이다. 투쟁하는 노동자, 투쟁과 연대의 필요성을 거두고 조선하청지회 투쟁을 통해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참고 자료]

○ 대담: <https://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6792>

“7.23 대우조선 희망버스, 사회적 연대투쟁의 연결고리 될 것”

[대담] 대우조선 비정규 파업투쟁의 지도자, 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노조 지회장

권영숙(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 2022.07.13.

홈페이지: <https://sapafund.org/?p=4801>

1987년 노동자대투쟁 가운데 거제 옥포만에서 이석규 열사의 죽음과 육해공으로 펼쳐진 국가와 자본의 탄압 속에서 싸우면서 민주노조를 만들어냈던 대우조선이다. 이제 2022년 대우조선의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는 비정규 노동자들과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가 공장 내 첫 비정규파업을 한 달 열흘째 감행하고 있다. 대우조선 사내하청지회가 아니라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다. 단위 사업장을 넘어서 비정규노동의 단일성으로 노동자의 계급적 파업을 만들어가고 있다. 대우조선 35년 만에 처음으로 배의 진수식을 막아냈다.

이렇게 역사는 반복이나 재연이 아니라 매 순간 새로움으로 나타난다. 한 달 열흘을 넘기며 지속되고 있는 이 파업투쟁의 다음 단계 역시 분명히 새로울 것이라고 믿어 본다.

[참고자료]

- 삼광pnc 노동자들 임금체불과 4대보험체납에 투쟁으로 맞서다!
- 굶으면 터진다!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조선히청지웁니다. 연락 달라고 하셔서 전화 드렸습니다!”
“네 삼광pnc 노동잔데요. 노동조합 가입하려고 모여 있는데 와주실 수 있습니까?”
순간 무슨 일이 생겼구나 생각 했다.

“네. 갈 수 있지요. 그런데 무슨 일이 생긴겁니까?”
“아니요. 그냥 노동조합 가입하려고 그러는데요. 안되나요?”
“안 되긴요. 당연히 되지요. 바로 가겠습니다.”

삼광pnc노동자들이 모여 있다는 탈의실로 갔다.

50-60명 정도의 노동자들이 모여 있고, 미리 도착한 하청지회 간부와 정규직활동가 동지가 앞서 도착해 있었다.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올 것이 왔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삼광pnc노동자들이 전한 이야기는 4대보험이 체납 되었고, 연금보험이 7개월, 3개보험은 9개월이 체납 되었고, 거기에다가 10월 임금 50%가 체불 되었다는 내용이였다.

참다 못한 노동자들의 분노가 폭발한 것이였다.

삼광노동자들과 하청지회는 그동안의 삼광 문제를 공유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고 대우지회도 함께 했다.

일단 우리는 이 문제를 현장 노동자에게 빨리 알리기 위해 삼광pnc노동자들에게 중식선전을 함께 하자라는 제안을 했고, 노동자들도 흔쾌히 하자고 했다.

대우지회는 중식선전에 방송차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D안벽 중식선전

60여명의 노동자들이 D안벽 식당 앞에 도열했고 자신들이 직접 적은 손피켓을 들고 함께 구호를 외쳤다.

“삼광PNC 이정호대표를 퇴출하라!”

“4대보험 체납 원정이 해결하라!”

“임금체불 원정이 해결하라!”

이 구호가 이상하게 느껴지는 노동자들도 있을 것이다.

노동자가 업체대표를 나가라고하고 업체 노동자가 업체의 세금체납, 임금체불 문제를 원정이 해결하라는 소리하는 것이 말이다.

아니다!

이제 우리 하청노동자들은 예전의 하청노동자들이 아니다.

하청업체의 문제가 하청업체만의 문제가 아니고, 하청노동자의 문제가 하청구조에서 나오는 문제라는 것을 이제 우리 하청노동자들은 알고 있다.

응원과 연대의 손길

하청지회는 중식선전전에 현장 조합원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고, 하청지회 간부뿐만 아니라 일반 조합원들도 중식선전에 결합했다. 그리고, 점심식사를 하러 왔다가 이 모습을 본 하청 노동자들은 함께 분노 했고, 몇몇 노동자들은 힘내라며 음료수를 사다 주기까지 했다. 이러한 응원과 손길에 우리들은 저녁 퇴근 선전을 제안 했고, 노동자들은 퇴근 선전을 촛불집회 형식으로 하면 어떻겠느냐고 맞제안을 했다. 그렇다 노동자들은 기억하고 있었다.

체불 임금 해결되다

중식선전 후 탈의실에서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하던 삼광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소식이 들려왔다. 오늘 중으로 체불임금 50%가 입금 될 것이라는 소식이였다. 노동자들은 한결같이 이야기 했다. 아침까지도 안 들어올 것 같은 돈이 몇 시간만에 들어 온다고? 자연스럽게 우리들은 지난 5월 성과금투쟁 이야기들을 했다. 그리고, 체불 임금 50%가 들어 왔다. 하지만, 4대보험 체납이 남았다. 그리고, 삼광PNC대표 이정호에 대한 분노가 남았다. 원청아 기다려라! 니들은 더 나빠!

2019년 첫 촛불을 들다

조선하청지회는2017년 겨울 ‘되찾자! 550%’ 피켓과 촛불을 들고, 상여금을 되찾기 위한 투쟁을 시작했고, 해가 짧아지는 겨울이 오면 촛불을 들고, 퇴근 선전을 진행해 왔다. 올해 첫 촛불은 삼광PNC노동자들이 들었다. 그리고, 동종업체인 진형노동자들도 함께 하겠다고 달려와 주었다. 가슴 뜨거워지는 순간이었다.

원청을 상대로 투쟁을 결의하다

퇴근선전 후 삼광PNC노동자들은 저녁도 굶고 하청지회 사무실에 모였다. 삼광 투쟁 소식을 듣고 하청지회 사무실로 도장업체 조합원, 탑재업체 조합원, 조립공장 조합원, 발판업체 조합원, 정규직 조합원 등 조합 사무실에 자리가 모자랄 정도로 많은 노동자동지들이 모였다. 거기에는 정규직 하청이 아니라 노동자라는 이름의 동지들이 연대와 단결의 맘으로 투쟁하기위해 모였다. 우리들은 함께 그 날의 투쟁과 결의를 다지고, 앞으로의 투쟁에 대한 논의를 시작 했고, 원청의 책임과 원청이 삼광PNC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해결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공감하고 원청에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면담을 신청하러 지원센터로 가자는 것을 함께 결정 했다.

남문 출근 투쟁

11월 22일 아침 전날 약속한대로 남문출근 투쟁을 위해 노동자들이 모였다.

7시에 모이기로 했으나 7시가 되기도 전에 노동자들은 모였고, 현장의 노동자들에게 삼광 문제를 알리고, 현장에 널리 공유해 주고 함께 분노해 주길 호소 했다.

남문 출근 투쟁을 마치고 우리들은 협력사 운영부가 있는 지원센터로 면담 요청을 하기 위한 행진을 시작 했다.

지원센터 옆에는 대우조선 정규직지회 조합 사무실이 있다. 우리가 지원센터로 가는 것을 알고 대우지회 지회장 신상기지회장이 우리들을 환영하고 응원해 주었고, 대우지회 집행부와 함께 지원센터로 향했다.

분노한 노동자의 앞길을 가로막는 자본의 개들

지원센터 앞에 도착하자 대우조선 인사과가 지원센터 입구를 가로 막고 있었다.

우리는 삼광PNC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고 면담을 요청하기 위해 왔는데 대우조선 원청은 얘기를 들어 보기도 전에 우리들의 진입을 차단하고 있었다.

하청노동자들의 피나는 저임금 노동으로 대우조선이 굴러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을 우리들은 다 알고 있다. 실제로 대우조선 생산공정 7-80% 이상을 우리 하청노동자들이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를 무슨 잡상인 취급하는 대우조선 원청을 보며 우리는 분노 했고, 우리는 진입을 시도 했고, 그들은 힘으로 우리들을 막았다. 우리는 대부분이 여성 노동자였다.

여성 노동자를 상대로 힘으로 진입을 막으려는 그들을 보며 정말 개탄스러운 맘이 들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우리는 분노한 노동자다. 정당하고 당당하고 억울한 노동자다.

우리들은 결국 진입에 성공 했고, 다행히 크게 다친 노동자는 없었지만 뒤에 이야기지만 우리 여성노동자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우리들을 이렇게 대할 줄은 정말 몰랐다는 얘기와 남자들이 여성노동자들을 힘으로 막아서는 모습에 깜짝 놀랐다는 얘기들을 했다.

대화를 요구하다

진입이후 우리는 원청의 대책마련과 해결을 요구하는 면담을 요청했고, 원청은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하청업체의 문제이고 자신들은 아무런 관련이 없으니 삼광PNC대표와 이야기를 하라며 대화 요청을 고사했다.

무슨 개뻥다구 같은 소리인가!

하청노동자가 저임금 노동해서 생긴 이익은 지들이 다 가져가고는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문제는 지들과 아무 상관 없다고?

지들은 모르는 일이라고?

그런 것도 모르는 것들이 대우조선을 경영하는 원청이라고?

그렇겠지 모르겠지 그런 것 아무것도 몰라도 하청노동자들이 저임금 받고 뼈빠지게 일해주니 몰라도 관심 없어도 회사 돌아간다고 생각하겠지!

대화를 하다

우리의 요구는 삼광PNC노동자 하청지회 그리고, 대우조선 원청과 삼광PNC대표 이렇게 4자가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를 하자는 요구였다. 하지만 원청은 하청지회가 참여하는

대화는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해 왔다.

삼광PNC노동자들은 처음엔 하청지회가 참석하지 않는 대화는 하지 않겠다는 뜻을 고사 했으나 문제 해결을 위해 하청지회가 빠진 3자가 참여하는 면담이 시작 되었고, 면담은 1차 와 2차 면담으로 이어졌다.

1차 면담에서는 삼광 이정호 대표는 자신의 부동산을 처리해서라도 12월 16일까지 4대보험 체납 문제를 해결 하겠다고 했고, 삼광노동자대표들은 그 부동산에 대해 노동자들 앞으로 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를 요청 하고, 삼광대표는 화요일까지 서류등을 준비하겠다고 했고, 삼광노동자들의 의견을 묻고 잠시 뒤에 2차 면담에서 결정을 하자고 하고 1차 면담을 마무리 했다.

거짓말이 드러나다

1차 면담 후 면담 내용을 삼광노동자들과 공유하고 노동자들은 부동산의 규모와 명의 소재 지등을 확인한 후에 사실이면 합의에 동의 하자고 정했고, 2차 면담이 진행되었다. 그런데, 1차면담에서 나온 이야기는 온데간데 없이 갑자기 삼광대표는 노동자들이 낸 연금보험 4억 8천6백에 대한 차용증을 써주겠다는 얘기가 나왔다.

차용증이 갑자기 웬 말인가?

그저 들으면 그럴싸한 조건처럼 들린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차용증 써주고 나중에 그 날짜에 안갸아 고소를 해도 재산이 없으면 차용증은 도루묵이 되고, 결국 민사소송을 해야 된다.왜 삼광대표는 1차 면담에서 부동산을 내놓겠다고 했다가 2차 면담에서 차용증 얘기로 말을 바꾸었을까?

노동자들은 2차 면담에서 차용증 얘기가 나오자 바로 이렇게 얘기 했다.

“ 다 거짓말이다!”

그렇다 자본가들은 모가지에 칼이 들어오고 진짜 모가지가 날아가기 전까지 노동자를 기만 하고 거짓말을 한다. 그것이 그들의 속성이다.

두차례의 면담에서 물질적인 결과는 없었다 하지만, 삼광노동자들은 알게 됐다.

자신들이 대표라고 부르던 자의 민낯과 원청을 상대로 한 투쟁만이 남았다는 사실을!